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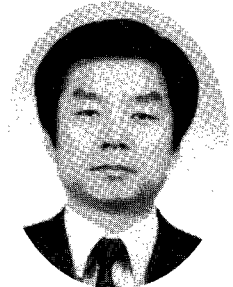
# 축산업계

소식

## 농림수산물 관련 지휘부 대폭 개편 장관에 강운태 전 광주시장, 차관에 조일호 전 농림수산부차관보 임명



△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



△ 조일호 농림수산부차관

정부는 지난 20일 11개 부처장관에 대한 전면개각을 단행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을 임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으로 23일 각부차관 및 청장에 대한 인사를 통해 농림수산부차관에 조일호 전 농림수산부차관보를 임명했으며, 농촌진흥청장에 조재연 전 농촌진흥청차장을 임명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

###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범위 20% 확대

재정경제원은 지난 12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업축산 대상 농가범위가 확대됐다.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부업축산가는 축종별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준 마리수보다 20%까지 초과하더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배합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젓소의 부업축산 기준마리수가 20두에서 30두로 늘어났다.

이와관련 전국의 축산인들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전면 확대실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어민이 가공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면제되며,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받게 되었다.

##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소·돼지·닭고기 1년간 계도기간

농림수산부는 수입개방에 따라 수입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원산지표시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인 경우 “국산”이라 표시하고 수입산물의 경우 “원산지국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3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위장 표시하거나 둔갑 판매

를 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에서 신규로 지정된 국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은 '96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지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축산관련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류, 치즈, 버터류, 소시지, 베이컨 등이다.

## 농지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시행령은 농지취득의 기준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를 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농지의 소유자가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1 또는 1년중 30일이상 주요 농작업에 종사할 경우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게해 도시인의 농지소유를 가능케 했다.

또한 농업경영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1만㎡이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기위해 1만㎡이상의 공동주택, 위탁시설, 시·군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용을 제한하고 있다.

## '96축산예산 1조1천2백17억원 책정

올해의 축산예산이 지난해보다 7백16억원(7%)이 늘어난 1조1천2백17억원으로 책정됐

다. 동예산은 축발기금 8천7백26억원과 국고 2천4백91억원으로 조달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같은 '96축산예산을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에 4천3백23억원, 축산단지조성사업에 6백14억원, 가축계열생산업에 1백96억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1천1백18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또한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주요가축의 능력향상을 위한 개량사업분야에 4백74억원, 축산물 유통개선분야에 9백55억원,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에 1천5백7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같이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들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했다.

## 축산기술연구소

### '96년도 시험연구사업 심의회 개최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천중인)는 지난 5일 동연구소 대강당에서 학계·업계 등 관련인사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시험연구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

동소는 '96년도에 부서별 총 87과제를 프로젝트화하여 수행을 하며, 산·학연의 공동시험연구가 많아진다. 또한 기초기술개발의 기반하에 산업화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외국대학 및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농어민신문

### 육류 수출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어민신문사는 지난 20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WTO체제하의 육류 수출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축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안덕수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이 “정부의 육류수출 정책 방향”, 김강식 한국육류수출협회 회장이 “국내 육류수출 활성화의 당면과제”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김홍국 (주)하림 대표의 “닭고기 수출의 현장애로와 대응방안”이란 내용으로 양계 분야의 사례발표를 했다.

또한 지정토론을 통하여 각계의 많은 이들의 활발한 의견교환으로 행사를 마쳤다.

##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

'95 농업과학기술 최우수연구 기관상 수상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장장 정선부)은 지난 12월 28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거행된 농림수산부연구상 및 우수기관 표창 수상식에서 농촌진흥 연구기관중 1개 기관에만 주어지는 올해 최우수 연구기관에 선정되어 최우수 연구기관상(공적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제주농업시험장에서는 “제주마 경주능



력 산출용 거리 보정계수개발”등 8건의 농정시책건의, 제주지역 젓소 전산 사양관리와 고소득 추석 출하용 단감 시설재배 가온적기 구멍 등 농촌지도사업 29건, 비타민 E 강화우유 개발 등 특허출원 7건을 하는 등 전국 농촌진흥 연구기관중 연구업적 등 농사기술 발전 혁신에 이바지한 공이 제일 뛰어나 이와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제주농업시험장에서는 '96년에도 우리나라 난지권 농업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분야는 핵 DNA 표지인자 이용 가축 개량, 저비용 양질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가축 분뇨처리 및 이용기술 향상 제고 또한 원예분야에서는 시설과수 용기 재배에 의한 조기 다수확 재배기술 확립, 구근 화훼 우량종구 생산 및 양액재배기술 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제주농업의 조기 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매일 아침 계란 한알  
튼튼한 몸 예쁜얼굴**